

2. 뉴스클리핑

1. 국내외 반도체산업 주요 뉴스

▶ '백신 먼저 맞은 나라들 덕에'...한국 4월 수출 최대

원문보기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속 속도가 높은 중국과 미국, EU(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며 한국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과 미국, EU로 향하는 수출이 모두 4월중 최대치를 경신했고, 한국 수출이 글로벌 경제의 선행지표 역할을 해왔음을 고려하면 세계경제가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반도체 초파격 지원' 공언한 민주... 법인세 인하·규제법 완화에 초점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초파격적 지원 방안을 담아 오는 8월까지 발의하기로 한 반도체 특별법에 법인세율 인하, 기업규제법 완화 등이 담길 지 주목된다. 매년 새 규제법안이 쏟아져 나오면서 기업투자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업계 호소가 이어지자 그동안 기업규제를 주도해온 민주당 내에서도 반도체 업계에 한해 규제를 일부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 "車반도체 부족...중소 반도체 기업 육성해야"

원문보기

국내 차 반도체 공급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원인은 무엇인가?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차량용 반도체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지만 메모리반도체 강국이고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여전히 경쟁력이 약함. 특히 현대 기아 등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국산 차량용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고 95% 이상을 수입하고 있음.

▶ 車반도체 국산화... 완성차팹리스 뭉쳤다

원문보기

국내 자동차업체와 반도체업체가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에 시동을 걸었다. 반도체 부족으로 국내에서도 완성차업체의 가동중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이 사실상 전략물자로 지정하며 더 이상 수입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 15곳과 완성차, 부품업체들이 향후 2개월마다 정기모임을 갖고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 美 '칩스 포 아메리카'vs中 '반도체 굴기' 사이 줄타기 흔들리는 메모리 超격차 유지하고....

원문보기

지난 4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놓은 일성이다. 이날 경제장관회의에는 이례적으로 기업인들이 직접 참석했다. 청와대는 "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반도체 패권 탈환을 선언하는 등 반도체를 둘러싼 주요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 산업부, 웨어러블 기기 활용한 코로나-19 해외 출장 지원

원문보기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는 특별출입국 파트너사 에스비티엠과 함께 스마트 밴드를 통해 ▲체온 측정 ▲원격상담 및 현지 의료 지원 ▲확진시 에어 엠블런스 이용 등을 서비스 예정이다. 에스비티엠은 해외안전이동 서비스 PITCO를 가동중에 있으며, 이번에 도입되는 스마트 밴드는 PITCO의 핵심 기능이다. 스마트 밴드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는 향후 '귀국 후 격리 면제'에 활용될 예정이다.